

구례군,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 軍장병 환송

제7공수특전여단·201특공여단·해병대 제1사단 소속 대대 등
김순호 군수 “폭염 속에서 힘든 복구 작업 훌륭하게 마쳐줘 감사”

구례군은 지난 7일과 8일 막대한 호우피해를 입은 구례 지역의 응급복구를 마치고 복귀하는 군 장병들을 25일 구례공설운동장에서 환송했다고 밝혔다.

차량에 탑승한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구례군청 직원들이 거리에 나와 격려 현수막을 펼치고 열렬히 환송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환송식에는 김순호 구례군수와 유시문 구례군의회 의장 등 구례군 관계자와 제31보병사단 소영민 사단장, 김동환 95연대장, 각 부대 대대장 등이 참석했다.

현신적으로 수해복구에 나선 제7공수특전여단, 201특공여단, 해병대 제1사단 소속 대대와 대대장에게 전라남도지사 감사패와 표창장을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이 전수했다.

김순호 군수는 제11공수특전여단 등 4개 부대와 4명의 대대장에게 감사패와 감사장을 전달했다.

소영민 사단장은 수해복구 유공장병 4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김순호 군수는 환송 인사에서 “이번 홍수로 구례군 지역은 막대한 피해 입고 주민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가장 큰 도움과 희망이 되었던 분들이 바로 국군 장병들이

었다”며 “군 장병들이 폭염 속에서 일반인들은 엄두도 내기 힘든 복구 작업을 훌륭하게 마쳐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소영민 사단장은 “구례에서 복구임무를 안전하고 충실히 수행한 장병들이 높이 치하한다”며 “태풍으로 인해 조기 복귀하지만 복구 지원이 더 필요하다면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11일부터 구례지역 수해피해 대민지원에 나선 부대는 제31보병사단 예하부대와 제7공수특전여단 2개 대대, 제11공수특전여단 2개 대대, 제201특공여단 1개 대대, 해병대 제1사단 1개 대대 등



으로 연인원 12,000여명이 복구 작업에 참여했다.

특히 해병대 1사단에서는 구례에서 수영하며 굴삭기, 트럭, 방역차량 등 6종 19대의 장비를 10일간 투입했다.

수해복구에 나선 군 장병들은

주로 구례읍 5일시장과 양정지구 주택, 상가, 축사 정리를 했으며 문척면과 마산면 일대에서 비닐하우스 철거 등 일반인이 처리하기 힘든 복구 작업에 집중 투입되어 임무를 완수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담양군, 버스 기본요금
3년 만에 200원 인상
기본요금 1300원→1500원

담양군은 오는 9월 1일부터 버스 기본요금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20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군 농촌버스는 좌석버스 25대, 일반버스 28대 등 모두 53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담양군 버스요금은 지난 2017년 1월 이후 현재까지 변함이 없었다.

2019년에는 ‘농어촌 단일요금제’가 시행되면서 담양군내에서 승,하차 시 버스요금은 거리에 상관없이 어른 1,300원, 중고생 1,000원, 초등학생 600원으로 적용, 요금의 부담 감소로 군민과 담양 방문 관광객들의 버스 이용 증대와 담양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인건비 인상 등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과 코로나19 여파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버스업체 경영 개선을 위해 지난 7월 27일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시내·농어촌 버스 운임·요금 조정을 심의·의결하여 버스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관내 농촌버스 단일요금 2020년 9월 1일부터 일반인 1,300원에서 1,500원, 중고생 1,000원에서 1,200원, 초등생 650원에서 750원으로 각각 인상되며, 관외로 운행하는 좌석형 버스 기본요금은 일반인 1,600원에서 1,800원, 중고생 1,200원에서 1,400원, 초등생 700원에서 900원으로 오른다.

담양=박종영 기자

곡성군, 수해 입은 축산농가 재개 위해 사료 등 긴급 공급

군·곡성축협, 톱밥 47톤·TMR 사료 77톤 긴급 공급
전남 조사료경영체협의회에서도 조사료 288톤 지원



곡성군이 수해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를 위해 사료 지원에 힘쓰고 있다.

곡성군과 곡성축협 측은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를 위해 톱밥 47톤과 TMR 사료 77톤을 긴급

공급했다. 또한 가축 폐사 처리, 분뇨 처리, 진료 지원, 축사 내 방역 실시 등 하루빨리 안정적으로 축산업에 재개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타 기관에서도 조사료를 지원해 축산 농가가 한시름 놓을 수 있도록 도왔다. 전남 조사료경영체협의회에서는 집중호우로 축사 침수, 한우 폐사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조사료 288톤(576톤)을 긴급 지원했다. 영암, 화순, 함평, 무안 등에서 기부한 조사료를 피해 농가들에게 전달한 것이다. 전남 조사료경영체협의회 정운태 회장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하루빨리 일상의 터전으로 복귀 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피해 극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도움의 손길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축산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곡성군, 수해 특별재난지역 상하수도 요금 감면

곡성군이 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9월 부과분에 적용되며 감면액은 재난 직전 3개월 월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이 해당된다. 수해 가구가 침수시설 세척, 청소 등 복구를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이 사용한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해주는 셈이다.

수해를 입은 상수도 수용가는

감면 신청서와 피해사실 확인서(읍면 발행)를 읍면 사무소 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9월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곡성군은 신청 방법 등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홈페이지, 마을방송,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곡성=김광휘 기자

나주 ‘문화재야행(夜行)’축제 10월로 연기

코로나19 재확산, 거리두기 2단계...10월 16~18일로 미뤄져

9월 중 나주시 원도심 읍성권에서 열릴 예정이던 ‘문화재야행(夜行)’ 축제가 코로나19로 연기됐다.

나주시는 내달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간 읍성권 일원에서 개최하려했던 2020 나주문화재야행 축제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로 연기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사 주관 단체인 나주읍성권도시재생협의회(회장 이명규)는 축제 일정을 10월 16일부터 18일로 미뤘다.

이명규 회장은 “수도권과 최근 광주·전남지역에 코로나19 재확산 추이에 따른 정부의 방역 대응 단계에 적극 협조하고자 축제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며 “천년고도 나주의 역사·문화적 위상과 매력을 제대로 선보일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축제 프로그램을 더욱 알차게 보완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축제는 지난 해 문화재청에서 주관한 ‘문화재야행’ 공모 사업 선정에 힘입어 나

주 읍성권 문화자산을 활용한 주민 주도의 특색 있는 야간형 문화향유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달 밝은 밤, 살며시 떠나는 8가지 여행’이라는 주제로 급성관을 비롯한 읍성권 내 문화재를 야간 개방해 8개 테마의 축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8개 테마는 △야경(夜景, 밤에 비춰보는 문화재) △야사(夜史, 밤에 듣는 역사 이야기) △야설(夜說, 공연 이야기) △야시(夜市, 진상품 장사 이야기) △야로(夜路, 밤에 걷는 거리) △야화(夜畵, 밤에 보는 그림) △야식(夜食, 음식 이야기) △야숙(夜宿, 문화재에서 하룻밤)으로 공연, 전시, 체험, 숙박, 먹거리, 여행 등을 총망라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축제는 나주시,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나주읍성권도시재생주인협의체가 주관하며 나주교육지원청, 동산대학교,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후원한다.

기동취재본부

장성군-수자원공사, 이암 마을 도랑살리기 ‘맞손’

장성군이 26일 한국수자원공사(사)물포럼코리아와 업무협약을 맺고 삼계면 이암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을 함께 추진해가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유두석 장성군수와 전화성 수자원공사 전남북부권지사장, (사)물포럼코리아 관계자, 이암마을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3월 환경부의 공모사업인 ‘우리마을 도랑살리기사업’에 선정된 장성군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업비 1억2000만원을 지원받아 삼계면 이암마을 이암천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이암천 일대 1.14km 구간이 사업대상이다.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GWANGJU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